



신행수기

시간속으로 달리는 시한폭탄 <상>

신선희 (43 · 경남 창원군)

"남편을 원망하고 미워하며 싫어하는 마음이 쌓이면 자궁에 병이 생긴다. 몇 생을 그렇게 하면 암이 된다"고 <불설 삼세인과 경>을 인용하여 연세대학교 김 모 이화박사가 말을 했다.

우리 몸에 생긴 병의 원인들을 정확하게 안다면 자신의 잘못을 뒤우치고 참회함으로써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라고. 그러나 나는 신문 어느 부분의 칼럼처럼, 굳어진 석고 썸으로 읽곤 했다.

1997년 늦은 가을날 우리나라는 IMF라는 불명예로운 국제적인 꼬리표를 달았다. 나라가 부도나 버린 것이다. 그 엄청난 단어와 언어 앞에 어제와 오늘의 상황이 지옥과 극락의 갈림길에서 끝없는 고통의 순간들로 한 번에 다가왔다. 임인생 호랑이, 세상이라는 정글의 숲에서 생명을 유지시키는 방법은 오로지 표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앞으로 달릴 수밖에 없었다.

경남 창원에서 군내 최초의 외국전문대학원을 개원하여 원만하게 운영이 이루어졌다. IMF가 터져버리자 영어권 외국인 강사 3인이 밤사이 이란도주해 본국으로 돌아 버렸다. 당시들의 나라에선 주유소 총잡이만 들어도 한국에서의 수입보다는 편찮다는 메모만 남긴 채.

어학원은 규모를 늘린 상황이라 경영 압박이 가슴을 크게 짓눌렀다. 급기야 한시바빠 어학원을 정리하는 것이 부채로부터 벗어나는 길인지를, 다른 외국인을 포함해 원가 절하로 매도하려고 해도 받아줄 사람이 없었다. 여기는 대도시도 아니고 전문 어학원이 경쟁할 상대도 없는 처지였기에, 어학 전공자 또는 경영을 해본 사람 찾기가 어려운 것은 당연했다. 급전에 시달리면서 잠자기 전 머리맡에 두고 <금강경> 한 편을 천천히 경전공부하듯 독송을 했다. 하루하루가 고통 그 자체로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오로지 한마음 안정시키기 위한 <금강경> 독송은 살아서 의식 속에 빛나는 보석이 되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신라시대부터 내려오는 고택 화양산 관동사에 갔다.

저녁예불과 관음기도를 하기 위하여 영산에서 30분 거리를 기도의 가파르기에 있을

때까지 하리라 마음을 크게 가졌다. 다른 방도가 내겐 없었다. 공장 부도 나지 말라고 은행 신용보증하여 준 것이, 오패의 44억 공장 부도와 함께 고스란히 나에게 크나큰 짐으로 남았다.

잠 못 이루는 밤, 오로지 <금강경>에 의지하고 관음기도에 희망과 목숨을 걸었다. 집안의 물라미 밀물과 썰물 교차하듯이 그렇게 깨닫게 되니 밀려나가는 것이 훨씬 보였다. 관동사 기도는 한달을 넘기고, 아무런 변화도 없이 참기 힘든 순간순간의 하루 뿐. 관동사에는 범당 내 상당 뒤편에 백의관을 벽화가 있었다. 관음기도를 하고 마칠 때는 뒤편 백의관 음벽화를 향해 삼배를 올리고 법당을 나왔다.

두 달이 지나갈 무렵, 어느 때처럼 저녁예불이 끝나고 홀로 남은 법당 찬바람에 두 손을 비비고 떨며, 3천 주력과 참회의 절을 하는 내 모습을 보고 있었다.

한참을 절하고 있는데 법당 뒤편에서 키가 작은 비구니 스님이 다가가 물었다.

어학원을 얼마에 넘기려고 하느냐. 2장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참을 바라보시는 비구니 스님은 말없이 법당 뒤편으로 사라져 버렸다.

화들짝 깨어보니 아침시간이었다. '아, 꿈이었구나. 온종일 꿈속에서 본 비구니 스님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스님과의 대화는 무슨 의미일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일까?' 시간이 오래갈 것이라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고 한달한달 은행 결제일에 어학원이 부도나지 않게 하는 살얼음판을 걸으며 차츰차츰 지쳐가고 있었다. 영어권 외국인 강사 한 명과 더불어 학교강 강 수업과 원내수업만 하면서 가능한



그림 · 김홍인

어학원 부도위기 속 오직 관음기도 어느날 새벽 잠깨어 끝없는 하월...

출강을 즐기고 모든 것을 정리하는 체제로 돌입했다. 그렇게 오패 부도에 따른 보증금에 대한 이자와 전세보증금을 손상시키는 어려운 경영난에 힘겨운 IMF와 씨름하며 버텼다.

겨울의 얼음보다 더 춥고 엄청난 금전의 허리케인 앞에 한 목숨 덕걸이하면서 오로지 <금강경> 독송과 발원기도는 나의 신선한 공기였고 안식처였다.

98년 봄, 4월 9일. 산다는 것이 아픔, 슬픔, 고통을 통감하면서 어느 날처럼 하루일 무를 정리하고 "죽음을 택하는 것이 차라리 행복하리라"는 절절한 심정으로 침실로 향했다. 어학원 건물 안에 조그마한 원룸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숙식을 하던 차였다.

평소처럼 <금강경>독송을 끝내고 누우면 바로 아침이었는데, 그날은 새벽 3시 30분 경 느낌이 이불 위에 소변을 보는 것 같아 벌떡 일어났다. 그런데 그것은 소변이 아니었다. 하얗게 하월을 하는 것이었다. 원룸 안에는 화장실이 없었다.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통에 소변을 보곤 했었는데, 빗딩어리와 함께 끊임없이 쏟아나오는 하월에 정신이 몽롱해졌다.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으나 전화기를 어렵게 찾아 장원에 계시는 부모님께 전화를 했다. 어지러움은 온몸을 마비시키고 움직일 수 없었다. 이미 플라스틱으로 된 큰 세

수대야가 하월로 가득찼다. 119도 생각나지 않았고 연락받은 부모님은 너무 놀라 구마고속도로 올라와야 할 것을 남해고속도로 올라와 뒤늦게 도착했다. 모친이 방안에 가득한 하월에 놀라워하는 동안 아버지는 119구급대를 부르고 방안의 하월자국과 하월의 대야를 깨끗이 치우고 계셨다.

5시경 마산 파티마병원 응급실로 들어가 응급조치를 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하월은 계속 되었고 꼬박 하루가 지났다. 의식은 선명했으나 의식과 상관없이 어느 곳이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누군가 옆에서 일으켜 주지 않으면 그대로 꿈꾸는 식물처럼 부동자세로 누워있어야만 했다.

원인을 알기 위해 아침부터 여기저기를 검사하고 나섰다. 자궁 내시경을 했더니 자궁내막에 근육종양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내막에 근육종양이 혈관 뿔뿔에 닿았기에 그것이 터졌고 그 터진 뿔뿔이 심각한 출혈로 나타난 것이라고 했다. 중요한 것은 수술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치료만 한다면 언젠가 또 반복된 하월이 언제 어디서 터져버릴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출혈과다로 생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간단명료한 설명을 가족과 본인에게 해주는 것이었다. 담당 주치의는 자궁 추출을 하는 것이 좋다고 권유했다. (계속)

킬레이 수행일기 <하>

공부를 해오면서 내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바로 조급증이라는 것이다. 항상 승패에 매달려야 하는 변호사로서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해 왔다. 자연스럽게 공부하는데도 그런 버릇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내게 다가온 다음 이야기는 한 순간에 문제점을 무너뜨리게 하였다.

토끼의 달리기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북이는 5년을 걸어서 토끼 집에 도착해 말했다. "어이! 토끼야 나랑 달리기 한번 어때?" 기가 막힌 토끼는 거북이를 들어서 획 던져 버렸다. 3년 뒤 거북이가 다시 찾아와 말했다. "아! 방금 날 던진 게 너냐?"

선사들의 이야기가 아닌, 어찌 보면 웃어 넘기기 쉬운 시중의 이야기에 번쩍이는 진리가 담겨 있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6개월이 지나도록 풀리지 않는 화두에 지친 마음이 다시금 기운을 얻으며 불끈 주먹을 다잡듯이 정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김연수 변호사

도 말씀하셨다. "드러내지 않았으되 저절로 드러나서 남들도 알게 되는..." 스님께서는 하루에 20분만 공부하라고 하신다. 다만 하루도 끊이지 않고 매일 공부해야 한다고 하셨다. 공부하는 이들의 가장 큰 병통은 공부할 때는 하루에 대어섯 시간씩 하다가 휴이 나지 않으면 며칠씩 쉬고 다시 마음 내키면 하루에 몰아쳐서 공부하는

하루 20분씩이라도 꾸준히 공부해야 생사윤회에 놀아나지 않는길 얻게 돼

아침 참선이 끝나면 모퉁 스님(국어사 주지)과 함께 차를 마신다. 스님께 서도 내 조급증을 아셨나 보다. 어느 날 차 마시는 시간에 모퉁 스님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 주셨다. "차를 마시는데 필요한 그릇 중의 하나는 경남 산청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산청에서 나는 흙은 중국 등에서 나는 흙보다 그릇을 만들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 도공들은 그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내고, 나아가서 그릇을 만들어냈다. 즉 새지 않되 물기가 바깥으로 배어나오는 그릇이다. 이제 나는 혼자만을 절실하게 깨닫는 시간이 지나면 그릇 밑바닥에 물기가 공내막에 근육종양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내막에 근육종양이 혈관 뿔뿔에 닿았기에 그것이 터졌고 그 터진 뿔뿔이 심각한 출혈로 나타난 것이라고 했다. 중요한 것은 수술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치료만 한다면 언젠가 또 반복된 하월이 언제 어디서 터져버릴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출혈과다로 생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간단명료한 설명을 가족과 본인에게 해주는 것이었다. 담당 주치의는 자궁 추출을 하는 것이 좋다고 권유했다. (계속)

것이란 말씀이다. 이런 공부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하신다.

참된 스승 찾는 일 자체가 참된 공부라는 말이 진실로 가슴에 와 닿는다. 큰스님으로부터 부처도, 조사도 모두 죽이는 기계를 가지지 않고는 선택이라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하였던가? 경전의 죽은 글자에 매료되어 원성이쳐를 좋은 말이나 나불댄다면 어찌 선이라 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윤회와 생사에 놀아날 지경이면 뭇하려고 모이고 더불어 출가를 배울 것인가?

이제 나는 혼자만을 절실하게 깨닫는 시간이 지나면 그릇 밑바닥에 물기가 공내막에 근육종양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내막에 근육종양이 혈관 뿔뿔에 닿았기에 그것이 터졌고 그 터진 뿔뿔이 심각한 출혈로 나타난 것이라고 했다. 중요한 것은 수술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치료만 한다면 언젠가 또 반복된 하월이 언제 어디서 터져버릴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출혈과다로 생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간단명료한 설명을 가족과 본인에게 해주는 것이었다. 담당 주치의는 자궁 추출을 하는 것이 좋다고 권유했다.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폭풍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교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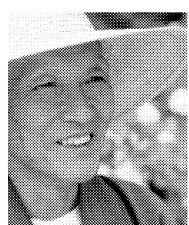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인편(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sisvhy@buddhapia.com

내가 외welt에서 살기를 좋아하는 것은 나 자신의 리듬에 맞추어 내 갈 길을 가기 위해서다

홀로 사는 즐거움

법정 지음 | 양장 | 값 9,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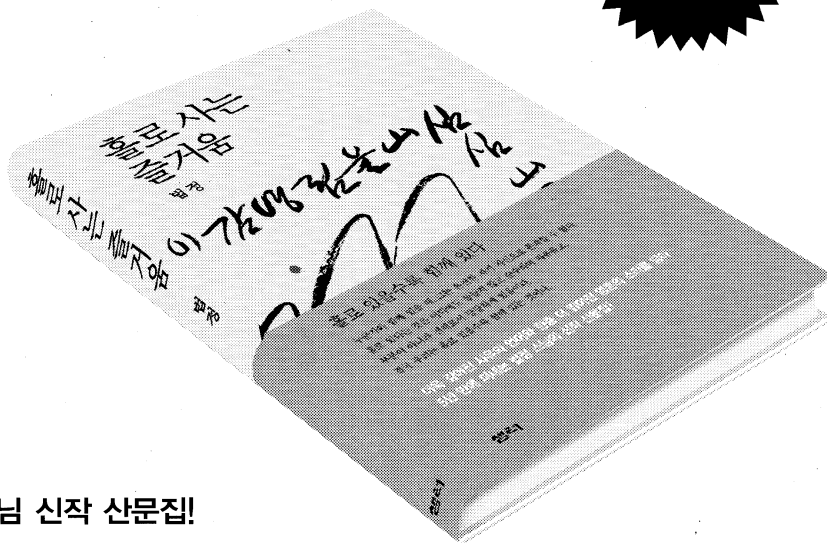
깊은 사유의 언어와 맑은 영혼의 소리 <오두막 편지> 이후 5년 만에 펴내는 법정 스님 신작 산문집!



홀로 있을수록 함께 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그는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없다. '홀로'라는 말 자체는 어디에도 붙들지 않고, 순수하며 자유롭고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서 당당하게 있는 것을 말한다. 당신이 홀로일 때 비로소 세상에 살면서도 늘 이웃사이더러 있으리라. 홀로 있을 때 완벽한 행동과 협동이 존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전체적이기 때문이다.

교보비소설 1위
영광 종합 1위
영광·동보 1위



사유의 기쁨을 깨닫게 해주는 법정 스님의 책들

서 있는 사람들

방황하고 절망하는 현대인들에게 따르는 사랑과 위인의 글

버리고 떠나기

진정한 총만은 버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준엄한 감동

물소리 바람소리

침묵을 통해 자연에서 배우는 진정한 아름다움과의 만남

산방한담

산사람의 정기와 자연의 정기가 뽐낼 스며 있는 수상집

당빈 총만

스님의 속뜻을 들여다볼 수 있는 담백한 산사 이야기

영혼의 모음

새벽 미술처럼 싱그러운 스님의 첫 수상집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빈민한 영혼을 적시는 침묵과 명상의 언어

말과 침묵

일반인들도 쉽게 보는 불타와 조사들의 어록, 불교 입문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나지막한 목소리로 읽는 소박하고 쉬운 속타나파타 강론집

인도기행

영혼과 깨달음의 땅 인도를 찾아가는 스님의 첫 기행문

